

트럼프 “이란과 합의 예정”...美매체 “전자서명할 것”

트럼프, SNS “오바마때 합의와는 정반대인 ‘핵무기 차단 장벽’ 될 것”
“모든게 안정된 적절할때 핵물질 확보...이란 또는 미국서 희석·파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전쟁 종전 및 비핵화 등을 위한 이란과의 합의가 14일(미국 현지시간) 서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은 모두에게 개방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타결했다가 자신의 집권 1기 때 무효화한 종전의 이란 핵합의(JCPOA)에 대해 “핵무기로 가는 쉽고, 아름답고, 순탄한 길”이었다고 비판한 뒤 “내가 이란과 맺을 합의는 정반대”라며 이란에 대한 “핵무기 확보 차단 장벽”(A WALL TO NO NUCLEAR WEAPON)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이란은 더 이상 핵무기를 원하지 않으며, 구매, 개발 또는 그 어떤 형태의 조달을 통해서도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이란의 비핵화 약속을 받을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란과의 관계는 이전(미국) 행정부들이 맺었던 관계와는 많이 다르고 더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에 지급한 현금 17억 달러를 포함한 수천억 달러와는 달리, 이번에는 돈이 오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양국이 잠정 합의한 양해각서(MOU)는 이란이 비핵화 등과 관련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에 상응해 동결자금 및 제재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MOU 서명과 동시에 이란에 지불하는 경제적 대가는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모든 상황이 안정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작년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참여한) 우리의 훌륭한 B-2 폭격기와 뛰어난 조종사들 덕분에 강력한 화강암 산맥 깊숙이 묻혀버린 ‘핵 먼지’(고농축우라늄 <HEU>)를 확보해, 이란에서든 미국에서든 희석 및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및 중동 전체와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힌 뒤 “이 과정(이란과의 합의 이행 과정)이 빠르고, 쉽고,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사용되길 결코 바라지 않는



백악관 복귀하는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으로 복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주 스티링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시간을 보냈고, 저녁에는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만찬에 참석했다. /UPI=연합뉴스

최후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며 합의 이행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이란 공격 옵션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계시글이 이란과의 합의 서명 방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미국 매체 약시오스는 화상 회의 및 전자서명 형식을

활용할 것이라고 13일 보도했다.
약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 카타르 측과 함께 14일 화상 회의를 열어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한편,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협상을 개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MOU에 전자 방식으로 서명할 것

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2일 이란 국영TV 대담 프로그램에서 “이번 합의는 협상의 최종 단계가 완료되는 대로 서명·발표될 것”이라며 “서명은 디지털 방식으로, 원격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원전 북서·남서쪽서 ‘세슘불’ 다량 발견”

日·대만 연구진, 방사선 물질 경로 규명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물질인 세슘 함유 미립자 ‘세슘불(CsM P)’의 확산 경로가 일본과 대만 연구진에 의해 최초로 규명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세슘불은 원전 폭발 사고로 콘크리트가 고온에 녹으면서 유리처럼 변한 성분이 세슘을 구형태로 감싼 뒤 굵은 직경 수 마이크로미터(μm) 크기의 미립자를 말한다.
세슘불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사람이나 동물이 흡입하면 폐에 침착되는 위험성이 제기돼 왔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확산 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었다.
일본 쓰쿠바대와 국립대만대 연구팀은 세슘 불 확산 실태를 연구해 환경과학 등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흙에 포함된 세슘 불 양을 조사하는 방법을 개발해 후쿠시마현 내 100곳에서 사고 직후 채취된 토양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후쿠시마 원전 북서쪽과 남서쪽에서 다량의 세슘불이 발견됐다. 토양 1g당 52개가 포

함된 곳도 있었고, 토양을 오염시킨 방사능의 60%가 세슘불인 경우도 있었다.
연구팀은 다른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은 후쿠시마 원전 북서쪽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세슘불에 의한 오염은 후쿠시마현 내 넓은 범위에 걸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끈 우쓰노미야 사토시 국립대만대 지구과학과 교수는 “세슘불 확산 과정이 밝혀진 것은 의미가 크다”며 연구 결과가 보다 정밀한 제염 작업과 향후 원자력 재해 대응 지침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가 지난 10일 중단됐다 재개된 지 이틀만인 13일 또다시 중단됐다, 안전상 이상 없음이 확인되며 다시 시작됐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도쿄전력은 현장을 원격으로 확인한 결과 설비에 이상은 없었으며, 희석용 바닷물을 보내는 펌프에 바닷물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보가 울렸다고 설명했다.
도쿄전력은 2023년 8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으며, 이번이 20번째 방류 작업이다. /연합뉴스

‘전쟁 첫날 사망’ 전 이란 최고지도자...내달 장례

‘美와 종전 MOU 임박’ 관측 일정 발표
이란 당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으로 숨진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을 내달 4일(현지시간)부터 치르기로 했다고 이란 매체가 13일 보도했다.
IRNA 통신, 프레스TV 등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내달 4-5일 수도 테헤란의 이맘 호메이니

모살라(대사원)에서 시민들이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시신에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6일에는 테헤란에서, 이튿날인 7일에는 시아파 이슬람 성지 고펜에서 각각 운구 행렬 일정이 이어진다.
최종 장례식은 9일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고향이자 이슬람 성지인 마슈하드에서 거행되며,

시아파 무슬림이 기리는 이맘 레자의 성지에 시신이 안장될 예정이라고 이란 매체들은 전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전쟁 발발 첫날인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족과 함께 사망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 장례 일정은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란에서는 아야톨라 하메네이 사망 이후 그의 아들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후임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다. /연합뉴스

‘갱단 천국’ 아이티 경찰 고위직, 무장괴한 피랍

갱단 탓에 국가 기능이 마비된 아이티에서 경찰 고위 간부가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다고 AP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랍된 인물은 아이티 경찰의 내부감찰 책임자인 자메스 부야야르다.
아이티 국방부 내각국장을 겸임하는 부야야르는 지난 11일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현재 납치 배후 세력이나 몸값 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포르토프랭스의 70%는 갱단 연합체인 ‘비브 앙상블’이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 비브 앙상블을 외국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부야야르는 최근 수년간 아이티에서 납치된 공직자 중 최고위급으로 꼽힌다.
국제위기그룹(ICG)의 디에고 다 린 연구원은 “이 정도 고위 인사는 상당한 규모의 경호

를 받는다”며 “경호 인력과 가까운 인물의 협조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아이티의 갱단은 공직자들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갱단 거점 지역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거나, 더 많은 몸값을 뜯어내기 위한 목적인다는 분석이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티에서는 1천288건의 납치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도 최소 267명이 납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2026 손자녀 가족돌보미 사업

광주여성단체협의회